

# 헌책이어서 더 새로운 한바탕 책잔치

## '92 알뜰도서 교환시장의 현장을 가다

나들이하기에 안성맞춤한 봄날 휴일이다.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강북지역 문화의 거리, 대학로 방송통신대학 교정에 '92 알뜰도서교환시장'이 섰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서게 될 이 행사를 보러 온 사람들로 개장 시각 오전 10시 이전부터 교정은 북적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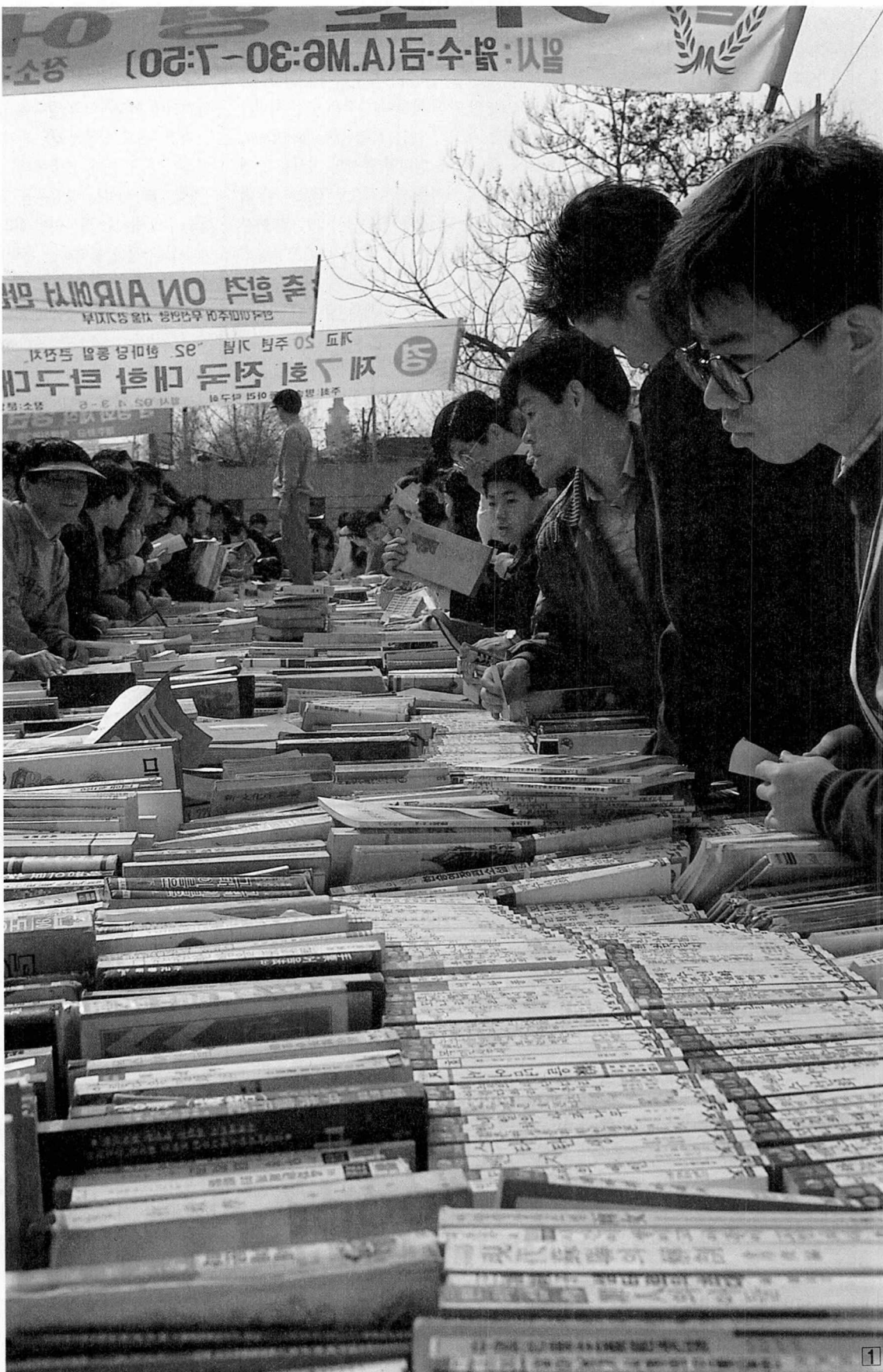
물오른 새순과 꽃색을 닮은 아이들 옷차림이 진열대에 미리 오른 만여권의 책들과 함께 어울린다. 모처럼 가진 나들이에서 책을 만나니 특별한 기쁨을 맛본다. 손때 묻은 책들을 안은 사람들이 교환대 앞에서 활기찬 인사로 맞는 봉사원들에게 책을 건넨다. 행사를 주도한 서점, 출판사 직원과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이었다. '주는 기쁨, 선택하는 즐거움'이란 소박한 글귀가 박힌 녹색T셔츠와 책모자가 깔끔하다. 가져온 책은 손상된 정도에 따라 빨강·노랑·파랑색의 딱지를 붙여 전시대로 옮기고, 대신 책을 교환할 수 있는 같은 색의 티켓을 받는다. 교환할 책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은 뒷편 포장코너에서 도서상품권을 구입하면 3권을 골라 가질 수 있다. 10여미터에 이르는 전시대에는 단연 소설류가 압도적이지만, 시집도 꽤 많이 눈에 띄고 수필, 평론집, 학술이론서나 대학교재, 시의성에 구애받지 않는 일간지나 계간지들에 이르기까지 구색이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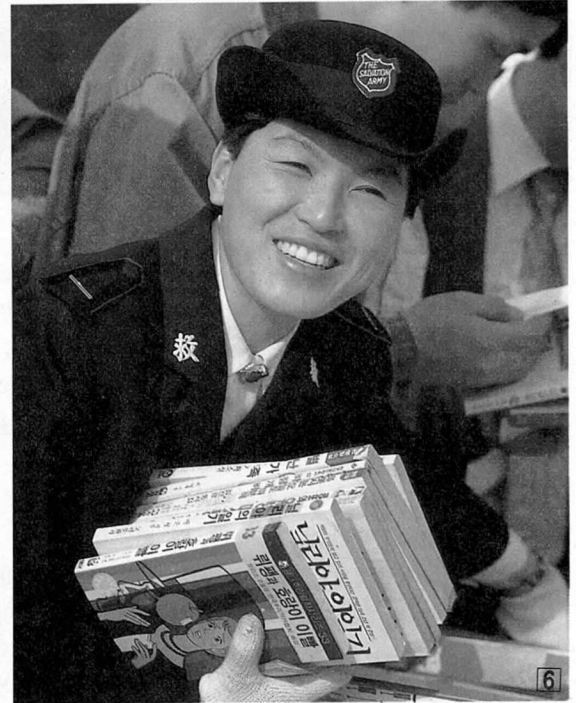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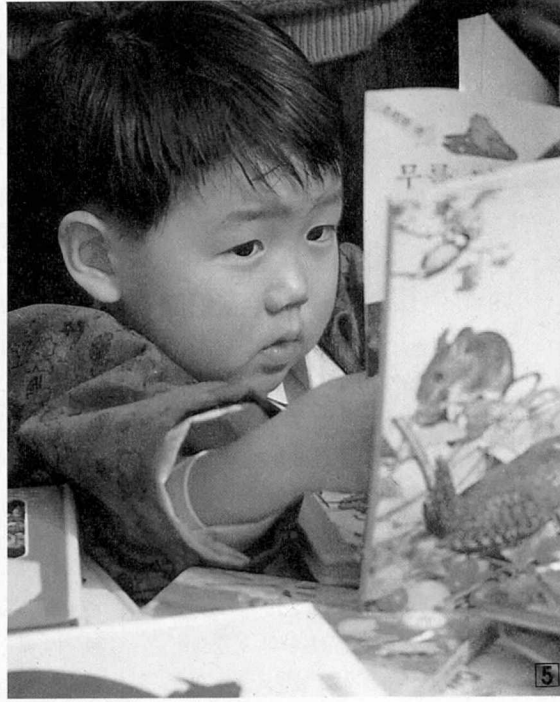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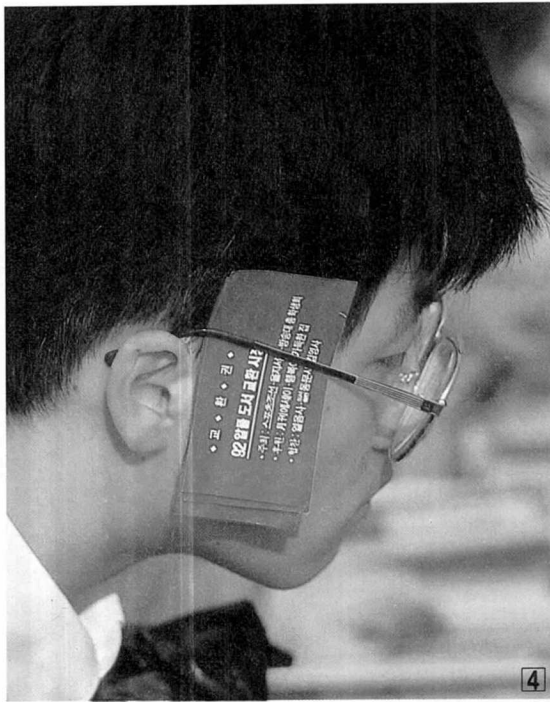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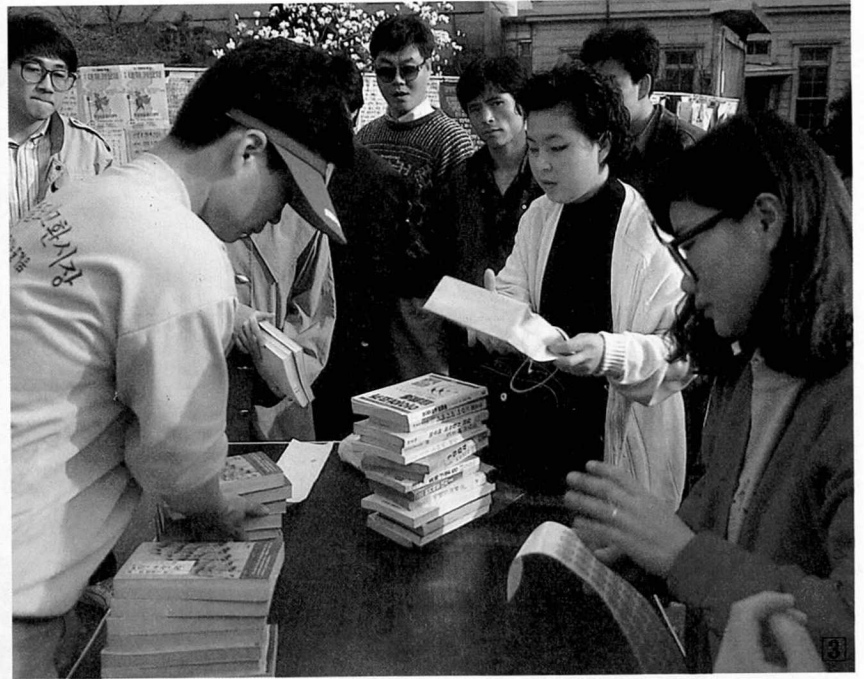
처음엔 대학로 전체에서 책시장과 베퉼시장을 함께 열 계획이었다. 대학로가 청소년들의 음주와 본드, 심지어 마약흡입 등 청소년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돼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 책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문화의 거리로 부활시켜보자는 일종의 캠페인으로 시작했다. 행사의 주최자들은 관할구청의 인식부족으로 대학로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교정에서 협소하게 치러진 점을 아쉬워했다. 전체 책의 40~50%가 순환돼 이번 행사를 500% 성공이라고 만족해하는 행사요원들은 다음달에선 대학로 전체에 알뜰도서장과 필요한 물건을 자유로이 맞바꾸는 '베퉼시장'도 등장하게 되리라 기대한다.

사실 대학로를 진지한 지적문화의 거리로 바꿔보자는 애초의 의지 외에 이 행사가 갖는 의미는 더 있다. 우선 색다른 독서욕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이미 한번 이상 남들의 눈을 거친 책들을 내가 다시 읽음으로써 미지의 다른 독자와 공감할 수 있다. 이번에 교환한 책을 다음달에 또다시 바꿔감으로써 그 기간동안의 집중적인 독서욕이 유발된다. 또 한가지는 재고도서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집에서 텅구는 헌책이 이 곳에 오면 어엿한 새책으로 탈바꿈해 새주인을 맞는다. 출판사측에선 창고에 쌓아둔 재고도서를 적합한 독자의 손에 넘길 기회다. 독자들도 신간위주 서점 진열에서 발견치 못한 책들을 새삼 발견해내는 즐거움을 누린다.

9월까지 계속될 책시장에서 매번 남은 책들은 구세군과 YMCA, 군대 등에 기증하고 낙도 등지에도 보낼 예정이다. 자리가 잡히면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행사는 지속되리라 기대한다. 젊음의 상징인 대학로가 본래의 건강성을 오랫동안 되찾은 듯하다.

—김지원 기자





① 동승동 한국방송통신대 교정에서 열린 '92 알뜰도서관시장'은 대학측과 스포츠조선, 을지서적이 주최하고 월간에세이·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후원, 김영사·동문사·열음사 등 출판사들이 협찬한 이 행사는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마다 열리게 된다.

② 이 행사는 장소가 협소해 책고르기가 불편했지만 전체 책의 50%가 순환되는 성과를 거뒀다. 매달 남은 책은 구세군과 YMCA, 군대, 낙도 등지에 기증할 예정이다.

③ 가져온 책은 등급에 따라 빨강·노랑·파랑딱지를 붙인 후 전시대로 옮겨진다.

④ 안경다리에 교환권을 끼고 책고르기에 몰두한 학생의 모습이 진지하기만 하다.

⑤ 부모 따라 새옷 입고 나선 어린이도 새로운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⑥ 봉사원으로 하루종일 애쓰는 구세군 여사관, 엄격한 제복에 시종일관 미소로써 책고르는 일을 도왔다.

⑦ 아예 전시대를 따로 마련한 어린이도서 코너.